

6. 본드 포워드 관련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가능성 점검

(국제국 외환분석체계개선반 표상원·전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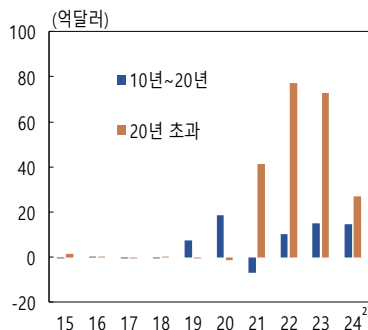
1. 해외 상업은행의 국내 장기채권 순투자 규모가 21년 이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지급여력비율 관리 목적으로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본드포워드 매입 수요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즉, 보험사의 거래상대방인 해외상업은행이 본드포워드 매도에 따른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하여 스왑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장기채권을 매입하였기 때문이다. 금년중 대규모의 보험사 본드포워드 만기도래가 예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해외 상업은행의 채권자금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2. 모니터링 결과, 국내 보험사의 본드포워드 거래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외국인 채권자금도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 등을 위해 본드포워드의 만기도래분만큼 재투자하여 기존 잔액을 유지하고 여타 보험사는 신규 거래를 소폭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장기금리 하락시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본드포워드 매입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3. 다만, 자금조달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국내은행이 해외 상업은행을 대체하면서 외국인 채권자금이 축소되고 외화자금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해외 상업은행이 국내은행보다 자금조달 비용(해외상업: CRS금리, 국내은행: 원화 IRS금리)이 작아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양 기관의 조달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드포워드 시장에서 해외 상업은행의 역할을 국내은행이 대체할 수 있다.

4. 한편, 본드포워드 만기시 보험사가 현물채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외국인 채권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현물채권 인수에 필요한 유동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더라도 단기RP 및 既보유 채권매도를 통해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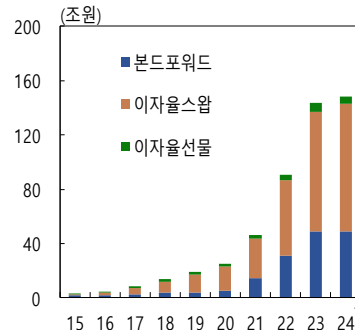
<해외 상업은행의 장기채권 투자>



주: 1) 잔존만기 기준
2) 1.2~3.29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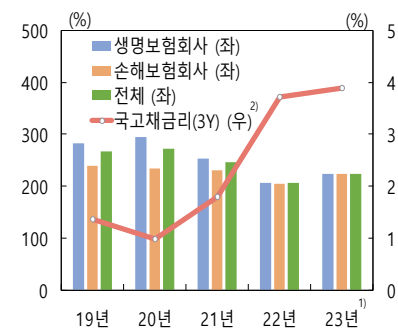
자료: 외환전산망

<보험사의 금리파생상품 잔액>



주: 1) 24.2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지급여력비율>



주: 1) 23년 9월말 기준
2) 기말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ECOS